예수님의 전도와 해녀의 자맥질

(막1:35-39)

35.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6.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전도와 해녀의 자맥질>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예수님의 전도행위와 해녀의 자맥질이 그 의미의 구조가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전도가 무엇인가라고 얘기 할 때 많은 선교학의 이론들, 그리고 목회현장에서 적용되는 전도의 이론들, 고구마 전도왕이다, 이슬비 전도편지, 전도폭발 등이 있는데, 가장 정확하게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녀가 자맥질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맥질이 뭡니까?
물속에서 팔다리를 움직여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하는 것을 자맥질이라고 합니다.
해녀는 이렇게 자맥질을 통해서 잠수해 들어가 바다 밑에서 해삼이나 전복 미역 등을 따내서 또 자맥질을 통해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쉬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제주도 해녀가 1회 바다 밑으로 잠수하는 시간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지식(止息)잠수, 멈출 지(止)자에 호흡할 때의 식(息)자, 그래서 수면 위에서 숨을 몰아쉬고 호

흡을 멈춥니다, 그리고 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전복을 따서 올라옵니다.
그 시간이 평균 35초입니다.
그런데 바다 밑에서 해조류나 해산물을 채취하는 작업에 필요한 시간이 21초입니다.
즉, 35초 중에서 14초는 오르락내리락하는 데에 쓰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물 밑을 파고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35초 동안 잠수해서 따내고 올라오는 것, 이것을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해요.
올라오면 곧바로 다시 내려가는 게 아니라 35초를 잠수해 있다가 오면 48초를 쉬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5미터 잠수일 경우에.
10미터 내려가면 35초 잠수했다가 올라와서 쉬는 시간이 85초로 늘어납니다.
85초는 쉬어야 그 다음에 또 10미터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시간 동안에 한 4,50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산물을 따내는 거예요.

이 해녀들의 자맥질, 이걸 그대로 예수님의 전도활동에 갖고 오면 우리가 전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복잡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성경에 근거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로 그 전체적인 내용이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바로 앞에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니까 동네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아마 밤늦게까지 사람들과 같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서 주무셨겠지요.
그리고 베드로나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아직 제자군(群)이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다 잠자고 있는 시간, 아직 해가 뜨기 전 깜깜한 시간에,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4시 5시쯤이 되겠지요, 그때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동네 밖 광야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하신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살펴보면,
제자들이 찾아와서 한 말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백화점 세일할 때 문 앞에 떼거리로 몰려 있다가 문 열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을 열면 우루루 몰려 들어갑니다, 그 시간이 보통 10시나 10시 반 아닙니까?
사람들이 아침 먹고 몰려왔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시나 5시에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북

적거리고 제자들이 인근에서 예수님을 찾다가 이쪽저쪽으로 퍼져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거의 10시 11시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시간이 5시간 이상은 됐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해 집니다.
5시간 이상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가버나움의 베드로 장모 집에 동네사람들이 다 몰려온 것이에요.
'아, 그래? 그럼 빨리 가야지!'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이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즉 '전도하러 왔다'
다른 사람들을 찾아간 것도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목회자들의 로망입니다.
새신자가 떼로 몰려온 것이에요.
이제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다 피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을로 갑니다, 새로운 마을로.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목회활동과 전도활동을 하셨을까요?
찾아오는 자들을 왜 피해가십니까? 재미있어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말은 오늘 본문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시잖아요?
여기서 '왔노라'라고 하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이 말은 '엑셀톤'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것은 '~로부터 밖으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왔노라'라는 말이 그냥 왔노라가 아니라 '내가 밖으로 나왔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밖으로 나왔다', 지금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를 네다섯 시간 한 다음에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전도하러 가자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밖으로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전도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제 마가가 '때가 찼고 하나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

작한 이 처음에 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기록했습니까?
지극히 사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예수님의 행위입니다.
제자들을 거느리고 공적으로 하나님나라를 전파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왜 이 공생애의 벽두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해가 떠서 시작하고 해가 지면서 집으로 돌아가 쉬는 것을 반복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내 일상의 삶이 반복될 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의 활동은 천국에 들어가 있다가 천국으로부터 나와서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간다, 아버지의 나라를 간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일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 있다가, 그곳에서 나와서 '엑셀톤', 그곳으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전도는 예수님의 일상이에요.
하루 삶의 내용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특별한 종교행위를 따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분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의 내용이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 계셨다가 그 천국에서 나와서 살다, 또 들어가시고 다시 나오시고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셔서 머물고 계시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자들을 대면하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까이 온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나와서 산다는 얘깁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침에 대여섯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사람들, 바리새인이나 랍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씩을 대여섯 시간씩 기도했다고는 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세 번 기도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제주도 해녀가 세 시간 잠수했다가 올라왔다 할 때, 수면 아래 있는 시간이 72분이고, 수면 위에서 쉬는 시간이 108분입니다.
그러니까 60%는 수면 위에 있고 40%를 아래서 활동을 합니다.
딱 이런 비율로 주님께서 활동하지 않으셨겠나 생각이 돼요, 잠자는 시간 빼고 난 나머지 시간으로 계산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활동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합니다만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헬라어 원어성경을 보면 '위를 향하여 호흡한다'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무슨 얘기이겠습니까?
해녀가 수면 위에서 호흡을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호흡이 멈춰집니다.
그 상태로 해삼과 전복을 따고 올라와서 숨을 쉽니다.
숨은 오직 수면 위에서만 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신 방법은 바로 기도하시면서 천국을 호흡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올 때는 바다 밑으로 잠수하듯이 나와서 해삼 따고 전복을 따듯이 활동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따내는 거예요.

해삼과 전복이 어디에 붙어있습니까?
바다 밑의 바위에 붙어있습니다, 수면 밑바닥에 붙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붙어있습니까?
이 세상 안의 무엇인가에 붙어있습니다.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것에 붙어있어요, 돈에 붙어있든지 건강에 붙어있든지 가족문제에 붙어있든지 마음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 잠수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이에요?
마음을 따내서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오직 천국만을 좋아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아버지와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좋아하는 자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천국을 호흡한다, 이 세상을 호흡한다.
주님은 이 세상을 호흡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을 호흡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숨통이 막혀, 숨통이!' 어떨 때 숨통이 막힙니까?
사업이 잘 안돼요, 자식이 문제예요, 사면을 돌아봐도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숨통이 막힌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어느 한쪽에서 일이 좀 제대로 되었을 때, 숨통이 틘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숨통이 막히고 틔는 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마음에 좋아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게 들숨이에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한 내 소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날숨입니다.
좋아합니다, 숨을 들이쉽니다.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한 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날숨입니다.
숨통이 열립니다.
돈 좋아합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들숨이에요, 내가 들이마셨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잘됩니다, 날숨이에요,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좋아해서 공기를 호흡하듯이 마음에 끌어들였어요, 그러나 날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숨통이 막히는 거죠.

자, 주님이 이 세상에서는 해녀처럼 숨을 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시간 동안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마음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을 호흡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호흡해서 하나님과 사랑이 잘 오고갑니다.
거기서 숨을 쉬고, 이 세상에서 활동할 때는 숨을 딱 멈춥니다.

이 세상에서는 숨을 멈추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호흡을 멈추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그냥 폼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호흡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호흡하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거기서 호흡하고, 딱 멈추고 세상에 잠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전도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라이프스타일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항상 매일같이 천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나왔노라, 그러므로 세상에서 내가 전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숨을 멈춘다, 세상을 절대 호흡하지 않는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좋아해서 마음으로 빨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도 사람들이 임금 삼겠다고 떼로 몰려들었을 때, 다 보내고 제자들까지도 먼저 보내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밤이 깊도록 혼자 기도하십니다, 저녁때부터 밤이 깊도록 기도하셨으니까 대충 사람들을 흩어 보낼 때가 9시라고 해도 대여섯 시간을 기도하신 것이에요.
마치 해녀가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전복을 따는데 잘 안 따집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따서 숨이 가쁜 상태로 막 급하게 수면 위로 올라오듯이 그렇게 천국의 수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사람들을 피하셨을까요?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도 일단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오전시간 한 시간이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다른 마을로 휭 하고 가버리십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귀신의 '멍군'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장군!' 하면서 들어오셨습니다.
마귀의 진영이 궤멸할 수 있는 급소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빼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사건이 일어났고, 마가는 십자가사건을 경험한 입장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경계 안에 있는 그 무엇에 붙어있던 해삼과 전복과 미역 같은 우리의 마음이 떨어져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천국을 향한 길을 여시고, 천국을 가까이 갖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계실 동안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장군!' 불렀습니다.
이때 귀신이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 것을 호흡하고 있고 세상에 딱 달라붙어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 상태에다 대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해버리려고 합니다.
알려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알리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만,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꼭 귀신이 겉으로 얘기해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자신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상태에서 그 귀신의 '멍군'과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라 마음이 세상 밖으로 나가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이 세상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피하십니다.

한 가지 문제를 내볼까요?
기독교가 다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성향이 농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극단적인 어떤 사람들의 집회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사업 해결, 건강해결, 가정문제 해결, 자녀문제 해결'
어떤 경우는 수능시험보기 얼마 전에 '4주 수능 1등급 진입기도회',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자, 이런 의도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부르짖는 이 집회에 예수님이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해보세요.

내가 지금 목사로서 설교하고, 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시간에 주어지는 모든 설교

와 기도의 내용이 전부 이 세상경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장로님들 기도를 들어보면, 맨 나라를 위한 기도, 국회의원선거가 있으니 잘 뽑히게 해주세요,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세요, 남북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전부 이 세상경계 안에 있어요.
그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살자는 기도가 아닐지라도 전부 이 세상경계 안에 머물러 있어요.
가까이 다가온 천국으로 우리가 마음이 가서 머물고 있다가 이곳에 나와서는 해녀가 미역 따듯이 잠깐잠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자, 이런 틀 안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잠수예요, 이 세상에 잠수하는 거예요.
지식(止息)잠수, 멈출 지(止) 호흡 식(息), 호흡을 멈추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호흡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아주 길어야 됩니다, 아주 잦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가까이 온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숨을 딱 멈추고 세상으로 잠수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마리아 코스워크를 밟으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마리아 코스워크를 밟으시면서 기도를 하면은 주님처럼 천국으로 마음이 들어갈 것이에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호흡하고 아버지를 호흡하고 주님을 호흡하고 있노라 보면, 내가 세상에 해녀가 자맥질하듯 잠수해 들어가서 이루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자맥질하다 숨이 차면 곧바로 기도를 통하여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호흡이 가빠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제주도 해녀가 한 시간 동안에 48회 잠수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잠깐잠깐 순간순간 천국에 들어가서 숨을 쉬고, 그리고 내려오고…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리고 전도가 우리로 말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될 수가 있겠지요.
신앙인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의 라이프스타일을 해녀의 자맥질처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은 종교적 구색을 갖추기 위한 명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에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천국에 들어가 있다가 천국에서 잠깐 나와 세상을 향해 잠수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는 해녀의 자맥질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